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 관련 무력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오윤경¹ · 김은영²

¹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²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Oh, Yun-Kyung¹ · Kim, Eun-Young²

¹Ph.D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Methods:** Participants were 149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who had completed their clinical practicum in B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was 2.99 out of 5 points, the powerlessness related to the clinical practice, 2.96 out of 5 points, and the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73.69 out of 100 points, respectively.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explained 11% of the powerlessnes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and 3% of the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in the nursing students after controlling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for decreasing the feeling of powerlessness and increasing the self-efficien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among the nursing students.

Key Words: Nursing students, Self efficacy, Practical nursing, Nursing educa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보건 의료 환경은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교육에서도 이론교육과 더불어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임상실습은 학습한 내용을 간호현장에 적용하도록 하며 간호대학생의 잠

재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학습 과정이다[2].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의 배움을 경험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술기를 학습하며,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임상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노력에 일치되는 실습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좋은 실습 장소를 제

주요어: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

* 본 논문은 제1저자 오윤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ong-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im, Eun-Young (<https://orcid.org/0000-0001-7547-1913>)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2 Daesingongwon-ro, Seo-gu, Busan 49201, Korea

Tel: +82-51-240-2785 Fax: +82-51-240-2920 E-mail: eykim@dau.ac.kr

Received: 31 August 2017 Revised: 12 November 2017 Accepted: 14 November 2017

공하는 일은 간호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3].

최근 임상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4]. 임상실습교육환경(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이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것으로[5], 간호관리자의 태도, 분위기,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등과 같은 임상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힘들의 네트워크이다[1]. 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기술과 지식을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실습을 위한 준비와 조직적인 기술, 그리고 역할 수행의 자신감을 가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5, 6].

그러나 최근 실습현장에서 환자의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간호대학생의 직접간호 수행이 국한된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무력감, 긴장,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된다[7]. 임상실습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의 차이, 모호한 역할, 낮은 보상, 복잡한 인간관계, 미숙한 역할수행, 신체적 피로 등의 이유로 다양한 신체 및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8, 9], 이러한 임상실습현장의 상황은 간호대학생에게 모든 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인지하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한다[10]. 선행연구에서[1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측정할 결과 중간정도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이러한 무력감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불안, 우울, 절망, 위축,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전반적인 학습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을 파악하고,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기효능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지각과 자신감을 말하며[11]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주어진 과제의 수행과 성취도를 높이며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12].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특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13], 임상수행능력의 향상과 같은 임상실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3]. 또한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맡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주요요인이다[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임상실습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동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고[15],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부정적인 결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낮추고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높일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임상실습교육환경(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임상 환경에서 작용하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1]. 본 연구에서는 Dunn과 Burnett [1]가 개발한 23문항의 도구를 Han [17]이 수정·번역한 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의미한다.

2) 임상실습관련 무력감(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무력감이란 현재 상황이나 발생할 일에 대해서 통제력이 결여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18].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 상황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Miller [19]의 무력감 사정 도구를 Lee [10]가 임상실습을 수행한 학생의 무력감을 파악할 수 있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의미한다.

3)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말한다[20].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이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특정 행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개인의 신념으로[13], Harvey와 McMurray [21]의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Scale (NCSE)를 Ahn [1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광역시에 소재하는 일 간호대학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에 걸쳐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였으며,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영향요인 16개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43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분석에서는 응답이 미비한 11부를 제외한 149부를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교육환경은 Dunn과 Burnett [1]이 개발하고 Han [17]이 수정·번역한 임상실습교육환경 척도(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 5개 하위영역으로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3문항, ‘병동분위기’ 3문항, ‘간호관리자의 책임’ 5문항, ‘환자와의 관계’ 4문항, ‘학생만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Han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2)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측정하기 위해, Miller [19]가 개발한 무력감 사정 도구를 Lee [10]가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의 무력감을 파악할 수 있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무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10]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Harvey와 McMurray [21]가 개발한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Scale (NCSE)를 Ahn [12]이 수정·보완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임상에서의 술기에 초점을 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자신이 없다’ 10점에서 ‘완전히 자신이 있다’ 10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Ahn [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D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2-104709-AB-N-01-201508-HR-032-02)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와 함께 자료 수집을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연구자가 해당 간호대학의 학과장에게 직접 연구목적과 진행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이후 학과사무실, 학생휴게실, 강의실 복도 등의 게시판에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부착하였고 이를 읽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에게 연구참여 동의서 및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 답하였다. 또한 연구에 대한 설명문에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알렸다.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학과사무실 앞 수거함에 직접 넣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고,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셋째,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8세이며 대부분 여학생(93.3%)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55.7%였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상자의 49.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높다"라는 경우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는 대상자의 54.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은 5점 만점에 평균 2.99±0.46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생만족'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9)

Variables	Categories	n(%)
Age (yr)		23.8±3.6
Gender	Female	139 (93.3)
	Male	10 (6.7)
Religion	Yes	66 (44.3)
	No	83 (55.7)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Unsatisfied	18 (12.0)
	Moderate	74 (49.7)
	Satisfied	57 (38.3)
Relationship with colleague	Moderate	25 (16.8)
	Good	85 (57.0)
	Very good	39 (26.2)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Low	12 (8.0)
	Moderate	61 (40.9)
	High	76 (51.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unt	Low	23 (15.5)
	Moderate	81 (54.4)
	High	45 (30.2)

Table 2.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N=149)

Variables	M±SD	Min	Max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2.99±0.46	1.63	4.26
Staff-student relationship	2.69±0.75	1.00	4.33
Hierarchy and rituals	2.80±0.66	1.33	4.33
Nurse manager commitment	2.97±0.61	1.40	4.60
Patient relationships	3.08±0.57	1.50	4.25
Student satisfaction	3.31±0.65	1.50	4.75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2.96±0.54	1.22	4.78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73.69±13.66	39.20	97.20

3.31±0.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자와의 관계' 3.08±0.57점, '간호관리자의 책임' 2.97±0.61점, '병동분위기' 2.80±0.66점,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2.69±0.75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96±0.54점이었으며,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100점 만점에 평균 73.69±13.66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t=2.30, p=.023$), 대학생활 만족도($F=3.60, p=.030$), 간호학전공 만족도($F=4.60, p=.012$),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3.29, p=.040$)이었다. 사후 검정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보통 또는 만족인 경우에 비하여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보다 낮음 또는 보통인 경우에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보통 또는 높은 경우에 비하여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실습동료와의 관계($F=10.72, p<.001$), 간호학전공 만족도($F=3.46, p=.034$)이었다. 사후 검정결과,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인 경우가 보통 또는 좋은 경우에 비하여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간호학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낮음 또는 보통인 경우보다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았다(Table 3).

4.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Table 3.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Variables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M± SD	t or F (p)	M± SD	t or F (p)		
Age (yr)			1.11 (.333)		2.79 (.065)		
Gender	Female	2.99±0.52	2.30 (.023)	73.76±13.74	0.22 (.824)		
	Male	2.59±0.68		72.76±13.09			
Religion	Yes	2.95±0.65	-.33 (.739)	74.87±13.19	0.94 (.348)		
	No	2.98±0.44		72.75±14.0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	Unsatisfied	3.24±0.56 ^a	3.60 (.030)	69.66±19.76	1.43 (.244)		
	Moderate	2.97±0.51 ^b		a>b		73.17±12.32	
	Satisfied	2.86±0.54 ^b				75.64±12.94	
Relationship with colleague [†]	Moderate	3.04±0.48	1.55 (.215)	67.16±13.13 ^b	10.72 (<.001)		
	Good	3.00±0.51		72.12±12.18 ^b		a>b	
	Very good	2.84±0.63		81.30±14.03 ^a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	Low	3.09±0.47 ^a	4.60 (.012)	69.36±17.15 ^b	3.46 (.034)		
	Moderate	3.10±0.51 ^a		a>b		70.90±14.09 ^b	a>b
	High	2.84±0.55 ^b				76.43±12.38 ^a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unt [†]	Low	3.20±0.60 ^a	3.29 (.040)	71.10±12.90	.64 (.530)		
	Moderate	2.96±0.49 ^b		a>b		73.67±14.14	
	High	2.86±0.56 ^b				75.06±13.24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N=149)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42 (<.001)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25 (.002)	-.30 (<.001)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42, p<.001$),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r=.25, p=.00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도 부적 관계($r=-.30, p<.001$)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Table 5). 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83~.99로 분포하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1.21으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913으로 오차 간에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명목척도인 성별(남자 기준), 대학생활만족도(보통 또는 만족 기준), 간호학전공 만족도(보통 또는 낮음 기준),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보통 또는 높음 기준)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 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만족도,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를 1차로 투입하였을 때(model 1)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model 1에 임상실습교육환경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model 2) 설명력이 24%로 모델 1에 비하여 11% 증가하였다. 모델 2에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에 영향을 준 요인은 성별과($\beta=.19, p=.012$) 임상실습교육환경($\beta=-.36, p<.001$)이었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91~.97로 분포하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3~1.09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2.046으로 오차 간에 자기상

Table 5. Predictors of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N=149)

Variables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Model 1 β (p)	Model 2 β (p)	Model 1 β (p)	Model 2 β (p)
Gender†	.19 (.015)	.19 (.012)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14 (.090)	.11 (.159)		
Relationship with colleague†			.31 (.001)	.29 (<.001)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16 (.066)	-.09 (.243)	.16 (.044)	.11 (.156)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unt†	.14 (.088)	.05 (.487)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36 (<.001)		.19 (.019)
F(p)	5.26 (.001)	9.189 (<.001)	11.42 (<.001)	9.74 (<.001)
R ²	.13	.24	.14	.17
Adj. R ²	.10	.22	.12	.15

†Dummy variables: Gender (Female=1, Male=0),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Unsatisfied=1, Moderate or Satisfied=0), Relationship with colleague (Very good=1, Moderate or Good=0),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High=1, Moderate or Low=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mount (Low=1, Moderate or High=0)

관이 없어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명목척도인 실습동료와의 관계(보통 또는 좋은편 기준), 간호학 전공 만족도(보통 또는 낮은 기준)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 시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학 전공만족도를 1차로 투입하였을 때(model 1)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model 1에 임상실습교육환경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model 2) 설명력이 17%로 모델 1에 비하여 3%로 증가하였다. 모델 2에서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요인은 실습동료와의 관계($\beta=.29, p<.001$)와 임상실습교육환경($\beta=.19, p=.019$)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은 5점 척도에 평균 2.99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한 Han [17]의 연구에서 2.75점 보다는 높고, Han과 Park [15]의 연구에서 3.09점, Kim과 Yang [16]의 연구에서 3.16점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의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평균이 가장 높은 영역은 ‘학생만족’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이었다. 이는 기존의 Han과 Park [15]의 연구와 Kim과 Yang [16]의 연구에서 같은 도

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가장 높은 영역이 ‘학생만족’, 가장 낮은 영역이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실습 시 병동 직원들이 간호대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5점 척도에 평균 2.96점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이 임상실습시 중간정도 이상의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측정한 Lee [10]의 연구에서 평균 2.57점이 나타난 것 보다 다소 높은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선행연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선행연구[10]와의 임상실습기관, 실습기간, 실습내용, 실습지도방법 등의 차이가 있어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반복연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과 성취욕구가 감소되고 패배의식을 가지게 된다[2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낮추기 위해 임상실습교육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임상지도자들이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학교와 임상실습기관이 협력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이에 대한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100

점 만점에 평균 73.69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Han [23] 연구의 74.93점과 비슷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과정에서 실제적인 동기와 목표설정 뿐 아니라 술기와 관련된 기술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대[24]. 따라서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임상실습 전에 사전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시뮬레이션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전공 만족도,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Hong과 Park [25]의 연구결과에서 성별, 간호학전공 만족도에 따라 무력감에 차이가 있는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학전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간호학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an [23]의 연구에서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간호학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실습위주의 생활을 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함에 따라 단절 및 고립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26], 정서적 지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실습동료와의 원만한 관계가 임상실습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실습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간호학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model 1)에서는 일반적 특성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model 2)에서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을 추가하여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임상실습교육환경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각각 다른 4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간의 무력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5]와 비슷한 결과이며, 임상실습교육

환경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등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한 Kim과 Yang [1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을 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idgley [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자신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이 3%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임상실습교육환경 이외에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감소하고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인 무력감을 낮추고, 긍정적인 결과인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임상실습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입장에서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이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및 정책을 마련하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임상실습기관 및 임상실습방법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과정을 통하여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예방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ORCID

Oh, Yun-Kyung <https://orcid.org/0000-0002-2213-5761>

Kim, Eun-Young <https://orcid.org/0000-0001-7547-1913>

REFERENCES

- Dunn SV, Burnett P.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5;22(6):1166-1173.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5.tb03119.x>
- Locken T, Norberg H. Reduced anxiety improves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rough utilization of mentoring triad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5;48(1):17-23.
-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The essential clinical resource for nursing academic missions [Internet].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2008 [cited 2014 March 17]. Available from: http://www.aacn.nche.edu/education-resources/Clinical_Essentials99.pdf
- Song JH, Kim MW.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2):251-264.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Chan D.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tool to assess hospital learning environments. *Nurse Education Today*. 2001;21(8):624-631. <https://doi.org/10.1054/nedt.2001.0595>
- Midgley K.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learning environ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s. *Nurse Education Today*. 2006;26(4):338-345. <https://doi.org/10.1016/j.nedt.2005.10.015>
- Lee AK, You HS, Park IH.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2):154-163. <https://doi.org/10.1111/jkana.2015.21.2.154>
- Lee JE, Kim SL.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05-213.
- Lee KH.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0;16(1):26-34.
- O'Kell S.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rning style, readiness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teaching preference of learner nurses in one health district. *Nurse Education Today*. 1988;8(4):197-204. [https://doi.org/10.1016/0260-6917\(88\)90149-9](https://doi.org/10.1016/0260-6917(88)90149-9)
- Ahn EK. A model for clinical nurses' self-efficacy and work performance [dissertation].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0. pp. 1-147.
- Pakieser-Reed K. Nursing practice self-efficacy and nursing practice outcome expectations f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Milwauke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2006. pp. 1-224.
- Kendall S, Bloomfield L.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5;51(2):174-181.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5.03479.x>
- Han JY, Park HS.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1;18(3):365-372.
- Kim EY, Yang SH.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4):417-425. <https://doi.org/10.1111/jkana.2015.21.4.417>
- Han JY.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2010;12(5):2595-2607.
- Koh JE.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powerlessness in the elderly.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001;19:125-138.
- Miller J. Powerlessness: Coping with chronic illness. Philadelphia: FA Davis Company. 1983.
- Bandura A.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86;4(3):359-373. <https://doi.org/10.1521/jscp.1986.4.3.359>
- Harvey V, McMurray N. Self-efficacy: A means of identifying problems in nursing education and career prog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1994;31(5):471-485. [https://doi.org/10.1016/0020-7489\(94\)90017-5](https://doi.org/10.1016/0020-7489(94)90017-5)
- Kim YM. Neighborhood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among adolesc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0;36(12):232-262.
- Han JJ.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2012.
- Shin EJ.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8;15(3):380-386.
- Hong SS, Park MJ.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369-377.
- Park JW, Ha NS.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3;12(1):27-35.